



Family

201908

한전기술은 국내원전 해체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뿐만 아니라 해외원전
해체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포커스 중에서-

사람을 향한 기술! 행복한 에너지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newpower, newstandard



2019년 8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Focus** |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 체결 외
08 **청백리** | 전남광주 빛가람청렴문화제 협업 참여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2 **일하며즐거며** | 영화와 함께한 파리 여행
18 **우체통** | 신입사원 교육 소감문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4 **新성장지도** | 대간이 흘러놓은 산과 산이 흘러놓은 지류 - 평창
30 **Storytelling** | 술맛을 돋우는 생선회, 배탈의 원인
32 **기자칼럼** | 청춘향(靑春香)
34 **생활과 과학** | 무인주문기에 분변이? 이제 손씻기 운동이 필요한 때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38 **한기氏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0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2 **인포메이션** |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외
46 **Poem** | 리은(理恩)
47 **에코포토** | 태양과 맞장 뜨기



통권 451호 ·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19년 8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juny0070@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6월 12일 한국서부발전과 '발전기술분야 인적·물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과 한국서부발전 김경재 기술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랜트 설계분야 전문기술을 활용한 '인적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부발전은 자사 고유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게 되며, O&M 등 신규 사업 발굴 시에는 상호간 적극 협력하게 된다.

협약은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협조 ▷신기술/신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협력 ▷O&M 사업 발굴 협력 및 상호 기술지원 ▷연구개발 과제의 공동 참여 및 기술지원 ▷기타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설계전문기술 역량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노하우가 접목된 기술협력 모범사례로 상호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과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합동 농촌일손돕기 봉사

- 일손 돕기, 양파 현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 줘



회사는 6월 18일 경북 김천시 부항면 하대리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사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과 하진수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노조 간부 및 2019년도 승급자 등 60여명이 솔선수범에 참여하였다.

이날 임직원들은 결연마을을 방문하여 양파 수확 및 오미자 넝쿨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수확된 양파를 현장에서 구매하는 현지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 수입에 도움을 주었다.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한열 김천시 부항면장은 한전기술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으로 김천시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한전기술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회사는 공식사회봉사 조직인 참사랑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마을과 결연을 맺고 일손돕기, 환경개선지원 등의 봉사활동과 농산물 판매지원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독일 원전 해체기업 대표단과 워크숍 개최

회사는 6월 26일 우리 회사를 방문한 독일 원전해체기업 대표단과 원전해체사업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독일 원전해체기업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가 주최한 '한국·독일 원전해체 비즈니스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대표단은 유니퍼 테크놀로지, GNS, TV Rheinland 등 12개 독일 원전해체 대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에는 독일 대표단과 김영호 사후관리사업그룹장을 비롯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회사의 원전해체 기술개발 현황, 고리 1호기 해체 현황 및 향후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회사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독일 해체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원전 해체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해체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일순 신임 상임감사 취임

회사는 7월 8일(월) 오후 4시 본사 국제세미나실에서 신임 정일순(鄭一淳) 상임감사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6월 26일(수) 주주총회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에 따라 임명된 정일순 상임감사는 2021년 7월 7일까지 2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신임 정일순 상임감사는 울진군의회 의장,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전남광주 빛가람청림문화제 협업 참여

– 전국 최초 광역 지역간 청림클러스터 협업 사례 –



경북지역 청림윤리협약체인 경북김천 청림클러스터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일원에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전남광주 청림클러스터 주관 '빛가람청림문화제'에 참여하였다. 이번 영호남 양대 청림클러스터 간 협업행사는 우리회사와 빛가람청림문화제 주관사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청림의 물결은 영호남을 넘어 하나로 흐른다'는 주제로 상호 협업을 추진하면서 성사되었으며, 전국 최초의 광역 지역간 청림클러스터 협업 사례이다. 경북김천 청림클러스터는 이번 빛가람청림문화제에 '청림아 놀자'(청림다트, 한전기술/구미시), '청림 맞춰라'(청림 물풍선, 한국도로공사/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정직한 청림'(국산·외산 농산물비교, 국립종자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행사 둘째날에는 이동근 상임감사 주관으로 한국

컨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평의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광역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림 공유 프로그램인 '청림 ACADEMY 투어 프로그램' 시연회가 개최되었다. '청림 ACADEMY 투어 프로그램'은 우리회사가 2017년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림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광역지역 단위로 개최되는 청림문화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청림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경북김천 청림플러스 문화제 개막

– 7월 19일까지 경북 김천 일원에서 반부패·청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



'경북김천 청림플러스 문화제'가 7월 15일 개회식 및 청림 재즈 콘서트를 시작으로 개막되었다. 이번 문화제는 경북김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및 지자체, 사회단체 등 22개 기관이 포함된 경북김천 청림클러스터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려 한전기술 '청림 ACADEMY 투어', 한국도로공사 '청림스파이크',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 '무료법률상담', 국립종자원 '국산·외산 종자 전시회' 등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남나주 청림클러스터 소속 4개 공공기관(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청림의 물결은 영호남을 넘어 하나로 흐른다"를 주제로 '청림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으로 협업 참여하였다. 그 밖에 청림음악회, 청백리연수, 아동회화전, 청림OX퀴즈, 청림골든벨, 반부패 청림 이행시, 교통안전용품 전시, 청림 헌혈행사 등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었다. 문화제를 주관한 정일순 상임감사는 "청림플러스 문화제가 지역사회와 한마음으로 즐기는 가운데 청림문화가 확산되는 행사가 되길 기원한다"며, "경북김천 청림클러스터를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반부패 청림윤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nd

많은 인파를 구경하다가 불현듯 드는 생각.
이들 중 누군가는 내일쯤 로또에 당첨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는 죽음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지.
휴게소에 들렀다고 해서 모두가 즐거운 건 아니니까.
자연휴양림 통나무 펜션에 짐을 풀었다.
침낭쿨과 소나무가 한데 어우러진 울창한 초록 숲,
여럿이 있으면서도 소리 내어 다투지 않는
생존의 기술을 터득한 너희들이야말로 공존의 고수다.

“우분 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으로
나는 곧 우리라는 의미이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한 인류학자가
그곳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다.
목표 지점에 맛있는 과일을 담아 놓고
누구든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주겠노라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렸다.
결승점에 도착한 아이들은 즐겁게 과일을 나눠먹었다.

놀란 학자가 물었다.
‘누구든 일등을 했으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뛰었어?’
그러자 ‘우분투’라는 단어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달리기에 자신 있는 한 아이가 말했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과일을 못 먹어 슬플 텐데
어찌 이긴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생겨난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 다섯 명 정도가
그날 하루를 행복해 한다는 통계도 있다.
논리보다 성품이고 순위보다 인성이다.

평화와 함께한 파리 여행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이다. 꼭 가보고 싶었던 파리 여행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면서 여행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뭘 먹고 뭘 볼까? 하는 고민에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많이 찾아 보고 느낀 것은 파리에겐 유명한 것도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관광명소, 미술관, 예술작품들. 다보기엔 예정된 여행기간이 너무도 짧게만 느껴졌다.



라보여관 앞에서, 고희도 이렇게 앉아서 마을 풍경을 보지 않았을까

P a r i s

나의 여행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에 몸을 실으며 시작되었다. 별로 특별할 게 없이 스쳐가는 풍경과 도로위의 차들을 보며 비행의 고단함과 약간의 지루함이 느껴질 때쯤 버스가 파리 시내로 들어서면서 우뚝 서있는 거대한 에투알 개선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버스는 어느새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근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바라본 에펠탑은 사진이나 영화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아름다우면서도 비현실적이었다. 에펠탑은 이 탑을 지은 프랑스의 건축가인 귀스타브 에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처음 탑이 건축될 당시에는 너무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흉물스럽다 하여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샀다고 한다. 탑을 싫어했던 소설가 모파상은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 탑 안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300m나 되는 거대한 탑이 파리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았다. 현재도 높은 건물이 거의 없는 파리 시내에서는 어디서나 에펠탑을 볼 수 있다. 여행기간 내내 보았던 에펠탑은 시간의 변화나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였고, 밤에는 조명으로 인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났다.



고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라보 여관



고흐마을답게 고흐 동상이 세워져있는 관광안내소 앞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모나리자

L o u v r e

파리에서 만난 명화들

파리에는 에펠탑과 견줄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또한 그 명성에 걸맞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구경하다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기 쉬웠고 주어진 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전시품을 다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여행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유명한 전시품들만 보고 나오자고 마음 먹었었다.

수 많은 전시품 중에서도 꼭봐야하는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였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었고 사전에 인터넷으로 검색 해봤을 때는 워낙 많은 관람객 인파 때문에 가까이가서 보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아침 일찍 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감상할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모나리자는 작은 크기의 그림이었고 커다란 유리벽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신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 앞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다. 눈썹이 없으며 웃는듯 웃지 않는듯.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러한 명성이 생긴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와 센강을 따라 걷다가 다리를 건너 다음으로 들른 곳은 오르세 미술관이었다.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1900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 개최를 맞아 건설한 철도역이자 호텔이었다. 철도역 영업을 중단한 후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내부는 기차역으로 쓰였던 모습이 보존 되어 있었다. 오르세 미술관에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 그 중에서



고흐와 동생 테오의 무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이된 들판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이 된 밀밭.
이부근 어디선가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한 고흐

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고흐의 자화상, 가세 박사, 오베르 교회, 아를의 반 고흐의 방,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살아생전 단 1점의 그림만 팔린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는 파리에 살던 동생 테오를 찾아와 동생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하고 지냈으며, 파리 근교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서 37살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2달 동안 70여편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의 그림은 오히려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유명해졌다. 그의 작품은 미술 교과서에 실리고,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오르세 미술관 다음으로 오랑주리 미술관을 방문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규모는 작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다. 오랑주리에는 클로이 모네의 수련 연작이 전시되어있다. 타원형의 흰색 전시실에 들어서게 되면 벽면을 가득 채운 수련을 만나게 된다. 수련이 떠있는 수면과 수면에 비친 하늘의 색채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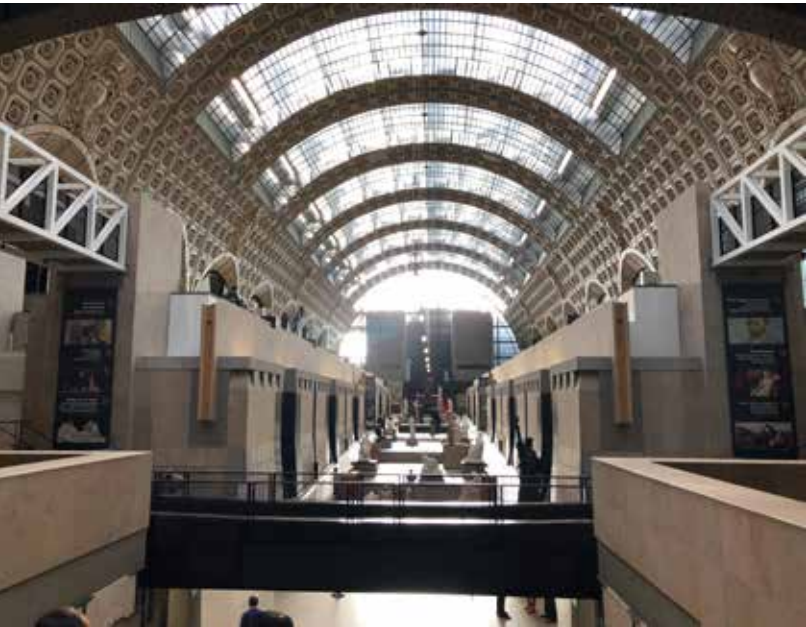


몽마르트 언덕에서 찍은 사진



아래에서 올려다본 거대한 철골로 이루어진 에펠탑

O r s a y



오르세 미술관 내부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는 모네의 수련 연작

보수공사가 한창인 오베르 교회



오베르 시청,
마을 곳곳에 있는
고흐의 그림과 표지판



하얗게 조명을 밝힌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



야간에 불을 밝힌 에펠탑



오르세 미술관의 고흐 작품 중 가세 박사 / 고흐의 자화상



오르세 미술관의 고흐 작품 중 아들의 고흐의 방 / 아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 오베르 교회



인상주의의 선구자인 모네는 빛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의 인상을 표현함으로써 화폭에 시간과 빛을 담으려 했다고 한다. 그는 파리의 북서쪽 센강 근처 지베르니에 은거하면서 정원과 연못을 화폭에 담아냈다고 한다. 수련 연작 또한 지베르니에서 직접 연못을 조성하고 그 위에 떠있는 수련을 직접 그려냈다고 한다. 화폭에 담긴 모네의 연못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여 파리 근교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였다.

영화속으로 떠나는 여행

다음 날 아침, 파리에서 차로 한시간을 달려 지베르니에 도착하였다. 지베르니에는 모네가 살았던 집과 함께 그의 그림의 배경이 된 정원과 연못이 있다. 모네가 직접 가꾼 집과 정원을 보기위해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했으며 마치 내가 모네의 그림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들었다. 모네의 집을 구경하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았던 그의 그림 속 일본식 다리를 건너 수련의 배경이 된 연못으로 향했다. 놀라울 정도로 그림과 똑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연못에서 잠시 감상에 젖었다. 그에게 있어 이 정원은 휴식을 주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모네의 집을 구경하고 다음으로 고흐마을이라 불리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로 이동했다. 오베르 쉬르 우아즈는 파리 북쪽의 작은 시골 마을이다. 평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본 그림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네의 연못과 수련

G i v e r n y



지베르니의 모네의 집

범한 시골 마을이지만 고흐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찾는 의미있는 장소가 되었다. 고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던 이 마을에서 그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다. 투어는 오베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았던 그림 속 교회는 아쉽게도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다. 오베르 교회 외에도 오베르 시청, 라보 여관, 오솔길, 들판 등 마을 전체가 그림의 배경이었다. 영화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으로 오솔길을 지나 고흐가 마지막으로 그린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이 되었던 공활한 들판에 도착했다. 고흐는 이 근처 어디선가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의 무덤 또한 마을의 공동묘지에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마을 공동묘지에는 고흐와 동생 테오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다. 죽기전까지 불운하고 가난했던 그는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방문할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

여행 전에는 최대한 많은 장소에 가보고 유명한 작품들을 모두 보고 오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여행을 해보니 욕심이었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매우 아쉬웠지만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실제로 보고 투어를 통해 작품 속의 실제 장소에 가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평생에 간직될 좋은 추억이 되었다. 여행을 마치며 이번에 일정 때문에 보지 못했던 작품들을 여유있게 둘러보며 남은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꼭 파리에 들르고 싶다. [E&C](#)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며

한국전력기술 최종합격

한번의 필기시험과 두 번의 면접을 거치고 난 뒤 받은 최종합격메일은 감격 그 자체였다.

가나긴 취업준비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지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더 기쁘고 행복했다. 입사하기 전 2주 남짓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옆 나라 일본의 오사카라는 도시로 여행을 통해 취업준비 생활을 마무리 하였다. 타지에서 즐겼던 여행의 시간을 앞으로 진정한 어른이 되는 나를 격려하는 계기로 삼았다. 귀국하고 남은 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그 동안 해준 응원에 대해 감사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그 동안 자주 찾아 뵈지 못한 일가 친척들을 만나 칭찬을 들으며 2018년 연말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값지게 보낼 수 있었다.



신입사원 교육

12월 26일 본사에서 진행된 입사식을 마치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동원리더스아카데미로 향하였다. 입사 전부터 이미 알고 지냈던 몇 명의 동기들을 제외하면 모두 처음 만난 동기들이지만 앞으로 약 30년동안 같이 지낼 전우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전체 50명의 입사동기는 각 5명으로 편성된 10개의 조로 나뉘어 수업을 들었고 그 중에 나는 8조에 속하게 되었다.

전체 일정은 '한국전력기술㈜ 역사와 핵심가치' 수업을 시작으로 직장에서의 예절교육,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교육 및 OA 활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당연히 '재테크 관련 재무교육'과 '팀 발표'이다. 앞으로 받을 월급을 주식과 부동산 등을 통해 몇 배로 부풀려 부자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수업을 준비하였지만 강의가 끝난 뒤 생각은 처음과 달라지게 되었다.

강사님의 강의 첫 말씨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축하고 길게 보고 투자하며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듣고 난 이후, 처음에는 허무하였다. 그 정도의 말은 나 또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전망 좋은 주식을 꼭 집어 추천해주는 걸 내심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사님의 수업이 진행될수록 강사님의 진심을 느끼며 빠져들게 되었다. 강사님께서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자신의 능력보다는 과하게 비싼 차와 사치품들로 인해 파산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특히 저축을 강조하셨다.

또한 강의를 통해서 사회초년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가장 큰 혜택은 주택청약으로 집을 분양 받는 것이었다. 1년동안 꾸준히 들어온 청약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뿌듯함을 느꼈고 동시에 회사 근처에 있는 좋은 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재테크 관련 수업은 43기 신입사원 동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었고 유익함과 동시에 사회초년생에겐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수업을 제공해주신 회사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낀다.

'팀 발표'또한 당연 인상 깊었던 과제였다. 신입사원 연수초반 서먹하였던 조원들과 함께 밤을 새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다 친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전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기 때문이다. 우리 조는 한국전력기술이 100주년이 되는 해(2075년)로 가정하여 미래의 회사에서 한국전력기술의 역사를 브리핑하는 사내 뉴스형식으로 발표를 하였다. 보령화력 준공식, UAE원전수주 달성 등 과거의 실제 역사부터 시작하여 핵융합로 상용화처럼 2075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또한 이루었다는 가정을 가지고 발표하였다. 사내뉴스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조원들이 직접 앵커가 되어 발표하였고 나름 완성도 높은 사내뉴스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를 비롯하여 43기 모든 조들이 각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완성도 높은 발표를 하였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원들과 함께 밤을 새며 작업하고 웃고 떠들며 조원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까지 높일 수 있었던,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과제였다.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며..

현재는 집합교육과 OJT교육이 모두 끝나고 부서에 배치되었다. 돌이켜 보았을 때 동기들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알게 되었다. 친해진 동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43기 동기 전체와 친해지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친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토록 바래왔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된 나였지만 현실은 업무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이었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와 앞으로 있을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항상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30년의 긴 직장생활 앞에서도 자신감이 생긴다. 교육기간 동안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평생 함께할 동기들이 생겨서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동기들과 함께 교육 받고 싶다. **E&C**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며

첫 목표, 첫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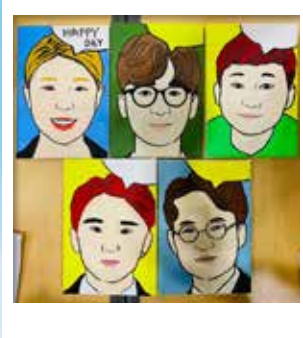
원자력공학을 전공하며 가졌던 꿈은 졸업하면 꼭 원자력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 것이었다.

대학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배운 짙막한 전공지식일 뿐이지만, 언젠가 전문성을 갖추 원자력발전소에 나의 결과가 반영되는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졸업 후 이어진 몇 개월간의 취업 노력 끝에,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한국전력기술’에 입사할 수 있었다. 철없던 시절 가졌던 꿈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12월 26일, 본사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입사식을 마치고, 우리 43기 신입사원 일동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전에 위치한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 입소했다. 연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켜본 신입사원 모두의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저마다 짓고 있는 미소의 이유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새로운 곳·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는 설렘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해 보였다. 연수원에 도착한 뒤 입사 동기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전체 교육과정의 소개가 시작됐다. 이번 신입사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였다.

신입사원 교육

이튿날, 본격적인 강의를 돌입되고 한국전력기술의 경요한 전임 교수님께서 우리 회사의 역사와 핵심가치에 대해 강의해주셨다. 강의를 듣기 전에 지극히 원자력분야의 관점에서만 회사를 바라봤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화력과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온 회사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좀 더 폭넓게 회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배우고 나니, 그 동안 이렇게 회사를 가꿔오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나 또한 선배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후배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회사 역사를 배운 뒤 다시 읽어본 우리 회사의 사훈, “熱心히 工夫하며, 誠實하게 勤勞하자”는 회사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존경 받는 선배, 분야 최고의 전문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훈처럼 열심히 또 성실히 일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사 교육을 비롯해 비즈니스 매너, 조직 커뮤니케이션 및 직장인 재무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수료했다. 다양한 강의 주제였지만 매 강의, 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입사원 교육과정을 통해 입사 전 보다 조금은 더 발전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신입사원 교육 전체 과정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체계적인 교육 일정과 그 내용의 높은 퀄리티였다. 교육 내용 전부가 내게 필요한 것이었고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진의 전문성은 내게 교육에 대한 믿음을 줬다. 전체 일정 동안 항상 우리 신입사원 일동을 위해 헌신하신 교육팀, 김창환 대리님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OJT 교육

연수원에서의 교육이 신입사원 공통 역량 강화가 목표였다면, 본사에서 진행된 OJT(On the Job Training)는 각 팀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었다. 실무 관련 내용을 신입사원 눈높이에서 다뤄, 내가 속한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업무까지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강의는 EGS를 시작으로, 각 팀 FGL 및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GS분들께서 전체 업무의 개요 및 사업과 부서 전체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강의해주셨다. 신입사원들이 앞으로 어떤 팀에 배치되더라도, 팀 사이의 소통과 업무 연계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강의라고 생각했다. 4주간 이어진 OJT 기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각 팀의 업무 담당자 선배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본인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업무 영역, 더 나아가 업무 연계 과정에 대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회사 생활 이야기 및 조연 등은 긴장하고 있던 신입사원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고, 부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얼얼불어 있었지만 선배님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차츰 나아질 수 있었다. 과도한 긴장보다는 적절한 긴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듯이, 자연스레 OJT의 집중도 및 이해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계속되는 강의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며..

한국전력기술 합격자 발표가 난 2018년 12월 말부터 신입사원 교육을 마친 2월까지, 약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고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단기간에 익힌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나온 2개월의 시간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이 경험을 앞으로 펼쳐질 회사생활의 밑거름으로 삼고 열심히 배우며 성실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회사의 비전인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에 걸맞는 한국전력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C**

C ommunication

계단만 열심히 걸어도

살이 빠진다는 말에 솔깃해서

지하철 계단도 걸어서 오르고

13층 집까지도 열심히 걸어서 올라갑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 나온 가수가

나의 행동에 반기를 드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오느냐고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오라네요.

조금은 코믹한 노랫말이었습니다.

그날은 온 종일 딱 한 소절,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음악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어 떠오르는 현상을

전문 용어로 “귀벌레(Earworm)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비키 윌리엄슨’에 의하면

‘귀 벌레 현상’은 입이 아니라 뇌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전 세계 인구의 98%가 이러한 현상을 경험 한다고 하네요.

‘귀벌레’는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가 심할 때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즐거운 기분을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니

일상에 별 지장이 없다면 내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연일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소나기라도 한바탕 내렸으면 좋으련만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 아니니

‘귀 벌레’나 초청해 불쾌지수를 내려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외면하고 계단을 오릅니다.

‘귀벌레’는 오지 않고 온몸에 땀만 범벅입니다.

대간이 흘러놓은 산과 산이 흘러놓은 지류 **평창**

지리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은 강원도 땅에 접어들어 점차 고도를 높인다.
태백산을 지나고 매봉산에 이르면 동쪽 해안선과 수평을 이루며 북쪽으로 치닫는데,
높이도 높으려니와 산의 밀도가 더욱 촘촘해진다. 이 촘촘한 산들이 산맥을 이루어 태백산맥이
된다.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태백산맥의 내륙 안부, 그곳에 평창이 자리하고 있다.



01 차량으로 오를 수 있고 풍광이 시원해 차량캠핑들의 성지가 되었다 02 원시의 청정자연을 간직한 장전 이끼계곡 03 기아기 자기한 포토존도 설치되어있다 04 장암산은 평창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다 05 청옥산 육백마지기 풍력발전단지

산문을 여는 오지 마을들

평창은 해발고도가 700m 이상인 곳이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한다. 특히 북쪽과 동서 방향으로 높은 산지가 감싸고 있는데, 북에서 서로 향하는 차령산맥 줄기를 따라 계방산, 흥정산, 태기산, 청태산, 백덕산이 솟아있고, 동쪽에는 황병산, 고루포기산, 발왕산, 박석산, 백석산, 청옥산, 가리왕산이 해발 1,200~1,500m 높이의 연봉을 이루고 있다. 산이 깊고 빼곡하니 흘러나오는 지류도 부지기수다. 평창강은 강원도 북부 계방산(1577m)에서 발원한 속사천을 본류로 시작된다. 속사천은 평창군 대화면과 봉평면 경계에 이르러 평창 서북쪽에서 흘러온 흥정천을 끌어들이고 이후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평창읍으로 흘러드는데 대화면을 지나며 대화천, 계촌천의 물길이 합수된다. 평창읍을 지나며 강은 산간과 마을을 굽이굽이 휘감아 돌아 영월군 서면 신천리에 이르러 주천강과 만나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강의 직선거리는 60km 밖에 되지 않지만 유로연장은 220km가 될 만큼 곡류가 심하다. 평창의 지류들은 물이 맑고 차며, 냉수성 어종인 송어 맛이 찰지기로 유명하다. 이 천혜의 산과 물이 자연주의 여행자들에게겐 최고의 힐링 공간인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 주변 마을들을 제외하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더 많다.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이유인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길도 좋아지고, 점차 여행객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차박 캠핑의 성지, 청옥산 육백마지기

해발 1,256m의 청옥산은 평창군 미탄면과 정선군 정선읍에 걸쳐있는 산이다. 가리왕산 남쪽 능선과 이어지며 우뚝 솟은 산이고 산세가 꽤 육중하다. 산 정상부에 평평한 지형이 너르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벌써 육백 두락 쯤 된다하여 육백마지기로 불린다. 주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무는 맛이 달고 작황도 좋은데, 교통편 때문에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한 듯하다. 강원산간답게 청옥산에는 곧드레 나물을 비롯해 각종 산나물이 많이 난다고 한다. 산의 이름도 청옥이라는 산나물이 많이 자생하여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산 서쪽 자락 밀목마을은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었다. 밀목이라는 말이 외적의 침입 때 적을 피해 숨어 살던 곳에서 유래 될 만큼 산간오지였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던 청옥산 육백마지기가 요즘엔 평창의 새로운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등산을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주로 차박이나 백패킹을 위해 찾는 캠퍼들이 대부분이다. 산 정상부에 풍력발전단지가 생겨나면서 길이 생겼고, 주변으로 야생화 단지와 포토존, 편의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말이면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의 이국적인 모습도 독특하지만, 청정한 자연과 탁 트인 풍광이 압권이다. 맑은 날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과 은하수도 큰 볼거리다. 차량은 미탄면 회동리에서 풍력단지까지 6km가량 올라간다.

청옥산 등산로

A코스 (6.4km,약 3시간) : 상수도 수원지-용수굴(능애동)-능선갈림길-정상-육백마지기

B코스 (17km,약 8시간) : 한치동-육백마지기-헬기장-정상-삿갓봉-자진구비-수리재

C코스 (7.5km,약 4시간) : 지동리(버스종점)-능선-정상-서남능선-용수굴-상수도 수원지

D코스 (9km,약 4시간 20분) : 지동리(버스종점)-능선-정상-서남능선(삿갓봉 방향)-지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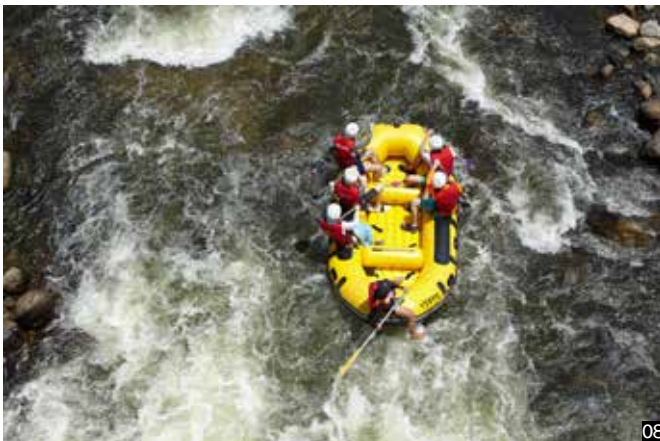




06



07



08

청정일급수가 흐르는 강, 물고기도 사람도 아늑한 공간들
여름여행의 백미는 계곡을 찾는 일이다. 계곡을 따라 걷고 쉬다보면 한여름 무더위는 오간데 없다. 평창의 무수한 산들만큼 무수한 지류들이 강으로 흘러든다. 많이 알려진 곳은 숙소를 비롯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곳은 원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공통점은 알려진 곳이나 알려지지 않은 곳이나 물이 맑고 차다는 것이다. 평창군 용평면 개수리부터 하안미리까지의 28km 구간은 금당계곡이다. 뒤편에 금당산(1,173m)이 있어서 이름 붙여졌다. 금당계곡은 평창군내 열두 마을을 흐르기 때문에 십이개수 라고도 불린다. 오염되지 않은 계류를 따라 사람 얼굴을 닮은 선바위, 아홉 용이 승천했다는 구룡소 등의 명소가 있다. 일급수의 물에는 버들치, 새코미꾸리, 쉬리, 돌고기, 미유기, 돌나리, 통가리, 꺾지, 산천어 등 정겨운 이름의 토종 담수어들이 살고 있으며, 근래에는 레프팅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홍정계곡 또한 평창강 지류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느껴질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고 청정함을 잘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 펜션 일세대라고 불릴 만큼 아늑한 숙소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다. 홍정계곡을 거슬러 조금 올라가다보면 허브나라 농원이 나타난다. 이곳에는 100여종의 다양한 허브들이 오밀조밀 심어져있는데 단순히 농원이라기 보단 공원형태의 이국적인 볼거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조용하고 깊고 사람이 드문 계곡을 찾는다면 평창의 동쪽, 진부에서 정선으로 향하는 59번 지방도를 따라가면 된다. 중앙산과 가리왕산의 지곡인 수향계곡, 막동계곡, 장전계곡, 숙암계곡이 길을 따라 이어진다. 어디든 한산하고 고요한데 마을마다 민박과 야영도 가능하다. 장전계곡에는 원시형태의 양치식물이 가득한 이끼계곡이 있어서 사진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삼척의 무견리계곡, 영월의 상동계곡과 더불어 전국의 3대 이끼계곡으로 알려져있다.



09

Tip

06 다양한 허브들을 볼 수있고 구입도 할 수 있다 07 홍정계곡은 수량이 풍부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느껴진다 08 금당계곡에서의 레프팅 09 홍정계곡의 명소 허브농원 10 평창강에서 다슬기를 잡는 여행객들

평창의 청정자연과 만나는 액티비티

평창읍 장암산(893m)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시원스런 풍광을 감상하며 하늘을 날아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하지만 굳이 패러글라이딩을 타지 않더라도 올라볼만 하다. 산과 산 사이 평창강이 물돌이를 이루며 흘러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한 폭의 그림 같다. 레프팅은 금당계곡과 뇌운계곡의 평창강, 미탄면의 동강에서 즐길 수 있다. 평창강의 물살은 잔잔한 편이고, 조금 더 액티브한 레프팅을 체험하고 싶다면, 동강 쪽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동강 백룡동굴 탐사도 연계할 수 있다.

조나단 패러글라이딩 스쿨/ 평창읍 장암동길 167/ 033-333-2625

뇌운계곡 레프팅/ 방림면 뇌운계곡로 840/ 033-332-0009

금당계곡 레프팅/ 봉평면 금당계곡로 1757/ 033-332-1117

동강 레프팅/ 미탄면 마하길 41-5 / 033-333-6600

평창 먹거리

냉수성 어종인 송어는 물이 차고 맑은 평창의 대표먹거리 중 하나다. 송어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서 여성들에게 특히 좋고 찰진 식감이 일품이다. 메밀꽃으로 유명한 봉평의 메밀막국수도 추천한다. 진부의 부일식당은 50년 동안 산채백반으로 이름난 곳이다. 강원도의 깊은 산간에서 채취한 향긋한 산나물이 주를 이룬다.

평창송어양식장/ 평창읍 이랫상리길 19-4/ 033-332-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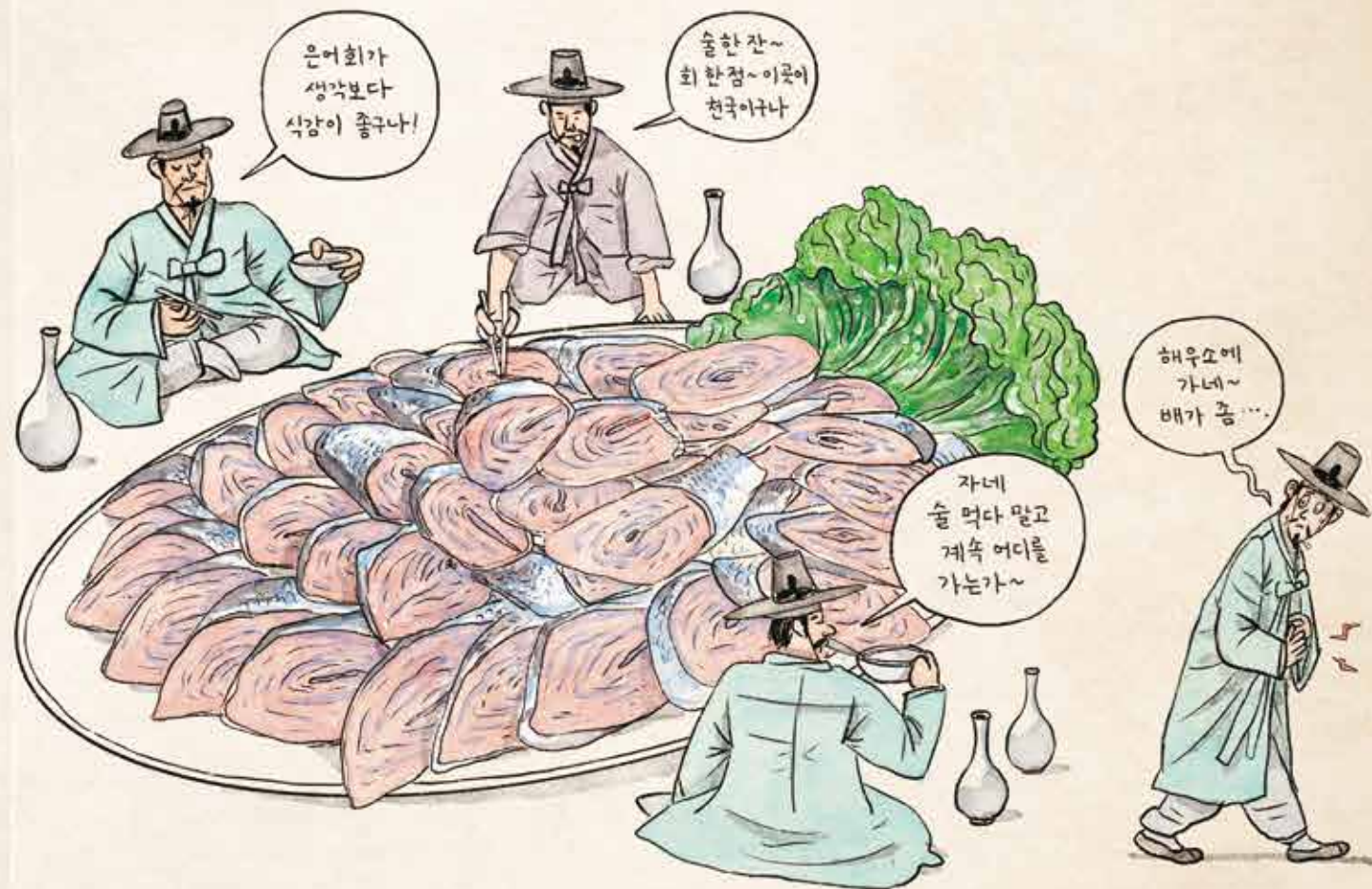
진미식당 막국수/ 봉평면 기풍로 186-3/ 033-335-0242

부일식당 산채백반/ 진부면 진부중앙로 98/ 033-335-7232 E&C



10

술맛을 돋우는 생선회, 배탈의 원인



김광계는 자연을 좋아했다. 번다한 공무에 시달리는 일 없이 작은 마을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삶을 살았던 만큼 종종 아름다운 풍경을 돌아보며 머리를 식히는 것이 얼마 안 되는 낙 중 하나였을 것이다. 친구나 친척들과 강가에서 술자리를 벌여 노는 것도 풍취가 있었고, 물이 고요한 날이면 배를 띄워 놀기도 했다. 그럴 때 종종 등장하는 안주가 은어였다. 1619년 5월 9일에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강가에 나갔는데, 바로 마른 물 덕에 쉽게 잡을 수 있는 은어를 건지기 위해서였다. 손쉽게 잡은 은어들은 수백 마리에 달했는데, 먹다 먹다 지쳐서 질릴 정도였다. 1628년 여름, 7월 9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쉽게 잡은 수백 마리의 은어를 서당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1638년에는 봄과 여름에 각각 물고기를 잡아 회를 쳐서 술안주로 먹었다. 생선회 안주를 먹는 일은 유람의 맛을 더하는 일이었다. 다음 해인 1639년 9월 24일에는 단풍 구경을 하다가 형제들과 풀밭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먹은 생선회 맛이 문득 그리워졌는지 종을 시켜 생선을 잡아 회를 치게 하였다. 종이 생선을 잡는 동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술맛을 돋우는 생선회가 턱 밑에 대령되었다. 하지만 모두들 민물고기 속에 숨어 있던 기생충이 배탈의 원인이 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 김광계는 여름마다 배탈에 시달려야 했다.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매원일기(梅園日記)
시 기	: 1619년 5월 9일 ~ 1639년 9월 24일
인 물	: 김광계, 김광보, 김광악, 김렴
주 제	: 음식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 예안 지방의 특산물, 은어

예안은 맛있기로 이름난 민물고기인 은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다. 김광계의 집에서도 그물을 쳐서 은어를 잡아먹는 일이 많았다. 어느 해인가는 가뭄이 드는 바람에 시냇물의 수량이 적어져서 그야말로 물릴 정도로 은어를 먹었던 적도 있었다. 김광계를 비롯한 예안 지방의 양반들은 뱃놀이 혹은 강가 술자리에서 갓 잡아 올려 상성한 은어를 그 자리에서 회쳐 안주로 곁들이곤 했다. 오늘날에도 민물고기 중에서는 고급으로 취급받는 은어이니만큼 신선하게 회로 먹는 맛도 각별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은어를 비롯한 민물고기를 회로 먹을 때 여러 모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계절을 잘 따져 먹지 않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도 은어에 기생하는 흡충은 인체에 들어오면 소장(小腸)에 달라붙어 설사 증세를 일으키는데, 김광계가 잦은 설사와 배앓이로 평생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미심장하다. 김광계도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은어를 아예 안 먹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굵거나 찌서 먹지 않았을까.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청춘향 (靑春香)

나는 일본 하이틴 만화를 좋아한다. 청춘이 꽃피기 시작하는 시기의 감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런 만화들에는 신선한 두근거림과 떨림이 있다. 사랑과 좌절이 있다.

모든 것이 섞여 특유의 향(香)을 뿜는다. 이를 ‘청춘의 향기’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아다치 미즈국의 ‘H2’, ‘Touch’, ‘Rough’와등가, 신카이 마코토의 애니메이션들은 특별히 강하고

독특한 향을 갖고 있다. 순수한 고등학생들의 땀 냄새, 바누 냄새, 봄의 따스한 햇살 냄새,

여름 밤의 축축하면서로 한가로운 공기의 분위기, 푹푹하게 피어오르는 첫 사랑과 긴장.

한가로운 속에서 열심히 추억을 쌓아올리는 그네들의 꿈을 표현하는 가운데,

작가들은 누군가의 청춘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를 뿜어낸다.



최근 호소다 마모루의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보며 다시 한 번 빛나는 그네들의 청춘과 대면하게 됐는데, 30대 중반을 관통하는 이 시기가 청춘이 아니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생각하게 되었다.

이젠 어쩌면 다음날 아침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도 밤새 술을 마실 수는 없을 것이다. 강남역 한복판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해 다 같이 드러누워 웃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자아이와 헤어지고 울면서 12차선 대로로 뛰어드는 짓은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할 게 많아져 버렸다. 마음의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할 수 있었을 때의 우리는 그만큼 아름다웠다. 자신을 서슴없이 누군가를 위해 버릴 수 있었던 날은 이제 아쉽지만 지나갔다.

난 그때를 어떻게 보냈던가. 생각해 보면 자유로운 시간엔 대개 혼자 보내곤 했다. 그 이유는 동네 친구들이 없어서 또 그게 편해서였다. 나는 조금 멀리 학교를 다녔다. 가장 소중한 추억은 시험을 친 뒤 오전에 학교 해 만화방으로 직행했던 일이다. 20권 가량을 일단 쌓아놓고 짜장면을 시켰다. 주인아저씨와의 수다도 생각한다. 불투명한 유리창에 비치는 햇빛이 좋았다. 남들 다 공부하는 시험기간에 한가로운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탈 같았다.

만화방에서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나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오래된 소파에 반쯤 누워있다. 조금 불어버린 짜장면에 젓가락을 쑤셔 박고 다음 장을 넘길 참이다. 지금에야 느끼는 것이지만 그때 옆에 누가 있었다면 그 시간이 더 눈부셨을 것 같다. 왜 친구들과 추억들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까. 학원 다니기 바쁜 강남 8학군의 아이들과 그런 건 무리였을 수 있다. 난 학교 성적을 통해 내 가치를 입증하느라 바쁘기도 했다. 짝사랑은 학교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극성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집착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던 학원의 원장 선생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연애가 인생을 망친다.”

제대로 된 첫사랑이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 그 시기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나란 인간의 나침반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모든 가정은 한가로운 날의 공상으로 끝날 일이겠지만.

나는 함께 할 사람과 시간이 없었던 그 시절을 보상받으려는 듯 20대를 살았다. 그래도 19살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다.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난 그 시기를 본의는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됐다.

낡은 대중문화 분석틀 한 귀퉁이를 뒤져, ‘대리 만족’라는 단어를 끌어다 놓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보며 코가 시큰해지는 내게 “만족 할 수 있겠어?”라고 묻는다면 난 “노(No)”라고 단호히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는 만화 속 그들의 청춘을 미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완전무결한 표본으로 만들어, 내 19살의 빈자리를 영원히 채워 넣을 수 없는 곳으로 주조해 낼 것이다. 아쉬움의 자리로, 먹지 못하는 메뉴판 속 음식들처럼.

맛있어 보여 시킨 음식에 실패한 뒤 “저 집 다신 안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먹어봤기 때문이다. 일본 하이틴물이 내는 청춘의 향기는 허기와 안타까움이 혼재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건 슬픔이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경각심으로 되 돌아온다. 현재를 100% 살아내지 않으면 이런 상실감을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걸 각인시킨다. 하지만 내 결론은 스트레스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삶이 그들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 내지 용기를 갖게 된다.

왜냐면 나도 20대를 지내며 그 나름의 청춘향(靑春香)을 뿜어왔다. 만화가 준 교훈은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건 지금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후회를 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더 쌓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

하루키는 썼다.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始原)의 풍경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속의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 글은 내 젊은 날의 잠언(箴言)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벌써 여름이다. 꽃은 피었다 졌고, 또 가을이 올 것이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매일 아침마다 용기를 내고 싶다. 그게 뭐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40대의 나는 할 수 없는 게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향을 빚어 나가 마지막 날 흐드러진 향기 속에 폭 빠져 가는 줄도 모르는 듯 가게 된다면, 그게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삶일 것이다. **E&C**

2019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A형 간염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자 제대로 닦이지 않은 머그컵을 통해 간염이 전파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A형 간염의 주 원인은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있는 병원균 때문이다. 타인의 침으로는 전파되기 어렵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분변에 있는 병원균을 만지게 되는 걸까?

무인주문기에 분변이? 이제 손씻기 운동이 필요한 때



사진 1. 제대로 손을 씻지 않을 경우 터치스크린에는 분변이 묻을 수 있다. (출처: shutterstock)



사진 2. 손을 제대로 씻으면 많은 감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출처: shutterstock)

무인주문기 터치스크린에서 대변 성분이 검출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터치스크린에는 대변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의 미생물학 연구팀은 맥도날드를 포함한 영국 전역의 음식점에 있는 무인주문기의 터치스크린을 조사했다. 결과는 끔찍했다. 조사했던 모든 터치스크린에서 분변에 있는 병원균이 검출되었다.

연구팀의 폴 메이트웰(Paul Matewale) 박사는 터치스크린의 병원균이 다양한 전염병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터치스크린에서 발견된 균은 대장균(coliform),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리스테리아균(Listeria) 등이며, 모두 전염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터치스크린으로 음식을 주문한 후 자신의 코를 만지면, 포도상구균이 인체로 침투하여 혈액 중독 및 독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리스테리아균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게 리스테리아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임산부는 리스테리아증으로 인해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제대로 손을 씻지 않는다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분변을 만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위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매장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소독제로 자주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터치스크린에서 분변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아무래도 종일 많은 사람이 만지는 터치스크린이 완벽하게 청결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변으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

감염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손 씻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손 씻기 방법이 권장되어 온 경우는 있었다. WHO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 60초간 6단계로 손을 씻는 방법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관찰 결과, 대다수의 사람은 60초간 6단계로 손을 씻어야 하는 수고로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위스 바젤대 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보다 단순한 손 씻기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알코올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이며, 단 15초간 3단계로 이뤄져 있다.

- 1) 양손 전체에 세정제를 묻히고 손바닥과 손등을 문지른다.
- 2) 한 손의 손가락을 모아 다른 손의 손바닥을 문지른다.
- 3) 엄지손가락을 돌리듯이 닦는다.

이와 같은 방법의 핵심은 '시간'보다 '마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권장되던 WHO의 6단계 손 씻기와 3단계 손 씻기를 비교했을 때, 3단계 손 씻기의 항균 효과도 6단계 못지않게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영국 맥도날드를 떠올려보자. 직원들은 터치스크린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지만, 세정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터치스크린을 쓸 때마다 청소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터치스크린 근처에 놓여있을 알코올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15초간 3단계로 손 닦기 캠페인을 벌인다면, 터치스크린을 통한 감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SC**

-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

Culture

Festival

양평 메기수염축제

기 간 : 5월 29일 ~ 8월 31일 장 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수미마을



양평메기수염축제는 맨손으로 미꾸라지 사냥, 독살체험으로 물고기 사냥, 맨손으로 메기사냥 등 체험객 수준에 맞게 선택하는 물고기 사냥과 황토와 놀기, 모래와 놀기, 뗏목 타고 수중생태탐험, 물싸움놀이, 자유물놀이, 수륙양용마차 타고 갈

대 숲 탐방 등 아이들과 엄마 아빠와 함께 여름을 신나게 이길 수 있는 물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 가족 나들이는 신나는 '물 맑은 양평메기수염축제'로 오셔서 행복한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www.summerfestival.kr

Exhibition

에릭요한슨 사진전

기 간 : 6월 5일 ~ 9월 15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세상' 초현실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 스웨덴 태생의 사진작가이며 리터칭 전문가인 에릭 요한슨은 사진계에 이름을 알리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현재 벤 구센, 딘 챔벌레인, 훌거 푸텐등과 함께 가장 촉망받는 사진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어렸을 적에 풍선을 타고 날아간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바보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이 불가능한 상상들이 뭐든 가능할 것만 같았다. 어렸을 적 상상했던 것들과 내가 꿈꾸던 미래의 세상을 작품 속에서 만나보자!

erikjohansson.modo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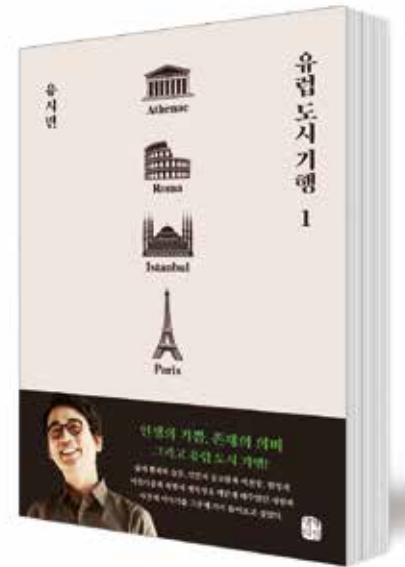
Book

유럽도시 기행 1 : 유시민, 낮선 도시에게 말을 걸다!

인생은 너무 짧은 여행이란 말에 끌려 유럽 도시 기행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저자.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유럽 도시 기행' 시리즈 첫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각 도시의 건축물과 거리, 광장, 박물관과 예술품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에 얽힌 지식과 정보를 그만의 목소리로 담아낸 《유럽 도시 기행 1》은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 네 도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각각의 도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그 도시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사람의 생애를 탐색했다. 이들 네 도시와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룩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성취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를 크게 바꾸었다. 그래서 소설보다 더 극적인 역사의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 문명을 이뤄낸 역사의 주인공들이 탄생한 도시의 공간을 하나하나를 직접 두 발로 찾아가, 낮선 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유시민 저 | 생각의길



Movie

마이 블라인드 라이프 : 5%의 시력, 200%의 도전

거짓말에서 시작된 열혈 인턴의 5성 호텔 입성기!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된 청년 '살리'

호텔리어를 꿈꾸지만 번번이 서류광탈!

자신의 꿈을 위해 시력의 비밀을 숨긴 채 유명 호텔에 지원하고

가까스로 실무 테스트 기회를 잡게 되지만, 험난한 관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좌충우돌 취업 도전기!

과연 '살리'는 모두에게 들리지 않고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까?

8월 개봉 예정



즐거운 회식은 이렇게

| 회식자리 지정 및 술잔채우기 요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성희롱 금지

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회식자리 지정 및 술잔채우기 요구



성희롱에 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장 동료들이 사심 없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식, 환영회 등에서 상사 옆에 여직원의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 따르기 혹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약식동원



사내 친목단체 약식동원에서는 2019년 6월 정기 행사로 전통 발효 중에 하나인 장(醬)만들기 체험과 건강 약식 체험을 원장카페인 장만나는 농원(대표 임미숙)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장만들기 및 약식체험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 체험 전에 농원의 소개와 야생화 해설을 듣고 약식 체험 이후에는 죽순 채취 활동과 함께 요리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농원의 주관으로 실시된 장 만들기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고추장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약식체험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남새)와 농원 주변에서 채취한 나물(푸새)과 죽순 등에

농원에서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을 넣어 만든 한끼의 식사가 제공되었다. 약식동원 동호회는 회원들의 단순한 건강 차원을 넘어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행사에 참여하였고, 식재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먹는 것이 곧 약이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동호회 이름의 뜻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다양한 식재료 체험 행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장 만들기과 약식체험을 통해 나와 가족의 건강이 회사의 건강임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며, 건강한 삶의 근간에 시간과 정성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건강한 식재료가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실 김영식 대리 본인 : 6월 09일 더리버사이드호텔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김재학 처장 자녀 : 6월 09일 라도무스아트센터
-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이상원 부장 자녀 : 6월 22일 W스퀘어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김은기 처장 : 7월 06일 네이버그린팩토리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김영백 처장 자녀 : 7월 13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부음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정민신 차장 장인상 : 6월 08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이규천 처장 모친상 : 6월 16일 서울 연세대학교
- ▶ 원자력)원자력기술실 문영태 부장 모친상 : 6월 17일 서울대병원장례식장
- ▶ 원자로)신기술사업그룹 이승규 부장 모친상 : 6월 19일 충남대학교병원
- ▶ 경영)인재개발교육원 김학철 처장 장인상 : 6월 1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 ▶ 디지털플랜트IT 최승인 부장 모친상 : 6월 19일 서울아산병원
- ▶ 에너지)신사업관리실 이영근 대리 부친상 : 6월 1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퇴직 선배님 상시 홈커밍 서비스 프로그램 안내

소통, 신뢰와 존중의 기업문화 조성, “존경받는 선배, 존중받는 후배” 실천과정의 일환으로 한기 퇴직 선배님들에 대한 상시 홈커밍 서비스 프로그램을 한국전력기술(주)에서 운영합니다.

■ 프로그램 개요

- 명 칭 : 퇴직 선배님 상시 홈커밍 서비스 프로그램
- 시행기간 : 2019.07.01 ~ 10.31
- 대 상 : 방문자 전원 10년이상 재직한 퇴직자 및 퇴직자 직계가족인 개인 및 단체
 - ※ 단, 업무협약/영업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시간은 2시간/건 이내로 한정)
 - 방문 시 컨택포인트 및 연락창구 지정
 - 회사 도착 시 안내데스크 접수안내 및 동행
 - 회사 사옥가이드 실시(홍보관, 역사관, 28층 전망대, 식당, 복지시설 등)
- ☎ 문의사항 : 윤리문화팀장 정상인 054-421-3338

부음

- 김준식 회원 배우자상 : 6월 15일 분당서울대병원
- 노진흥 회원 부친상 : 6월 19일 아주대병원
- 김의준 회원 장모상 : 6월 21일 분당제생병원
- 김영일 회원 본인상 : 6월 25일 분당서울대병원
- 김영준 회원 장모상 : 7월 02일 삼육서울병원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 ‘부킹닷컴(Booking.com)’, ‘고투게이트(Gotogate)’ 관련 불만 해결 어려워

최근 해외여행 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 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1,324건

최근 3년간(2017. 1.~2019. 5.)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종합정보망으로 피해방지 정보 제공 및 소비자불만 해결을 지원

**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

‘부킹닷컴’·‘고투게이트’ 관련 불만은 해결이 어려워 이용에 주의 필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한편,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Gotogate)’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Booking.com)’은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급불가’ 상품 예약 시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할 것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 숙박·항공 예약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숙박·항공권 예약 시, 예약대행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의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한다.
- ▶ 저렴한 가격의 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예약 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 요청 시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 ※ 예약 당시 ‘취소·환급 불가’ 조건이 명시된 상품은 숙박 예정일이나 출국예정일이 상당히 남은 경우에도 환급이 어려움.
- ▶ 숙박업소 관련 최신 정보(호텔 위치, 호텔 정책·규정 등 변경 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에 기록된 숙소 이용후기 등 다른 이용객 정보를 참조한다.
- ▶ 예약 시스템 문제로 인한 중복 결제나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숙박·항공 예약대행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접수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 ▶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 세부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의 “해외직구-가이드라인-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참고 E&C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zero Pay 제로페이 Q&A 다~알려주마! ”



GS25 MINI STOP CU emart24 7 ELEVEN

QR코드 / 바코드로 결제하는
zero Pay
새로운 결제 생활로 앞서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zero 소상공인컨설팅결제추진사업단

Q.1 수수료가 0%대라는데
점자 올리는 것 아니가요?

A.1
아닙니다. 소상공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중기부 고시 등으로 규정하여 결제사업자가
수수료를 임의로 변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Q.2 카드 단말기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가요?

A.2
기존 QR키트판과 함께
5월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카드단말기로도
결제가 됩니다.

Q.3 신청하면 언제부터
실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나요?

A.3
온라인으로 가맹 신청을 하시면 일주일 안에
QR키트를 배송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2~4일 추가 소요

Q.4 제로페이 결제 시,
결제취소, 환불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이 나와 있는 모바일 앱을 갖고
결제매장을 방문해 결제 취소나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Q.5 제로페이 전용 앱이 있나요?

A.5
제로페이 전용앱은 없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명 : NICE페이, 엔터가게(우리은행), 박스페이(은행공동),
리브(국민은행), N+앱(새마을금회) 등 후속 추가 예정

Q.6 소득공제 40% 말고
다른 소비자 혜택은 없나요?

A.6
소득공제 40% 혜택 이외에도 공공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리은(理恩)

Writer 김홍균 영광 한빛 현장사무소 과장

거울을 통해 살핀 겉모습
아이를 통해 깨달은 본모습

한겨울 계곡물에 비친 모습처럼
그녀의 투명한 수정체에 비친
순수로의 내모습

“보고싶었어요”
존재를 인정해주는 한 마디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아야했어요”
타인의 아픔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리은(理恩)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창조주의 섭리(攝理)와 은혜(恩惠)를 되새긴다.



태양과 맞장 뜨기

유난히 여름을 그리고 태양을 즐기는 식물들이 있어요
꽃잎이 마치 호랑이 가죽 무늬와 유사하게 생긴 범부채...
다섯 장의 꽃잎이 손가락을 힘껏 펼친 모양으로 생겼고
주황색의 꽃잎에는 태양만큼 붉은 반점들이 새겨져 있고
가늘고 질긴 꽃 가지와 줄기는 사정없이 뻗어 있지요
범부채는 아침에 꽃을 피우고 오후에 지는 일일초입니다
고작 몇 시간만 꽃을 피우지만 그 몇 시간 동안 강렬하고
격렬하게 태양과 곤충을 향한 구애를 시작합니다
다섯 장의 꽃잎 중에 세 장에 진한 꿀 샘을 만들어 놓고
아주 멀리까지 향기를 퍼뜨려 곤충을 유혹 합니다
태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짙고 강한 향기가 퍼집니다
한여름... 태양과 맞장을 뜨면 뜰수록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지는 것이지요
태양과의 맞장은 범부채의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톨칼안천환경지 부장

